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4. 3.(금)

프랑스와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강화

- 한-프랑스 정상회담 계기, 핵심광물·반도체 협력의향서 체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이하 경제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26.2월 외교적 공조 강화 위해 기존 美 국무부 주도 핵심광물안보협의체(MSP)가 재출범한 핵심광물 다자협력체

** '25.12월 美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핵심광물·반도체·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다자협의체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랑스 경제부와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AI의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의 중요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정책 공유, 정부·민간 분야 교류 확대, 공급망 회복력 향상, 연구·혁신 협력 등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부·민간간 협력이 보다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동영 (044-203-5664)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윤가영 (044-203-5258)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김기훈 (044-203-427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